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11. 22(일)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이철우 도지사, 한·미동맹의 전초기지 캠프워커 방문** 7월 알랜 美대19사령관 도청 방문에 이어 이 도지사와 두 번째 만남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안보동맹에 이어 문화동맹으로 발전시켜야..	안전정책과	
② **경북도, 내년도 환경산림분야 국비 24.5% 증액 상임위 통과** 환경산림 국비예산 올해 보다 1351억원 증액 된 6857억원 확보	환경정책과	
③ **경북도내, 코로나19 국내감염 6명 발생** 김천대학교 관련 3명, 안동 1명, 문경 1명, 영주 1명 추가 확진자 발생	보건정책과	
④ **경북도, 인구변화에 따른 지자체 역할과 입법정책 정비방안 찾는다** 지자체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과 발전방향, 지방소멸 특별법 등 논의	인구정책과	
⑤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 방역 유공 금오대상 수상** 코로나 검사 비상대택반 구성... 신속한 코로나 검사로 감염확산 차단	보건환경 연구원	
⑥ **경북도, 22만여 농가·임가·어가 대상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11.23일부터 인터넷조사 우선실시... 12.1일부터 방문조사 병행 실시	빅데이터 담당관	
⑦ **경북도, 23일부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소나무류 취급업소 등 대상 불법유통 근절... 재선충병 확산 차단	산림자원과	
⑧ **물멍시대, 경상북도가 관상어 산업을 선도한다** 11.20일, '관상어 산업의 미래와 경북의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 웰빙문화 확산, 코로나블루 치유 등 관상어 시장 연평균 7~8% 급성장	해양수산과	
⑨ **경북도, 구인·구직자의 오작교 역량을 강화한다!** 도·시군 일자리 담당공무원, 취업지원센터 상담사 역량강화 공동연수	일자리경제 노동과	
⑩ **경북농업기술원, 신기술 개발로 경북농업 발전 선도** 올해 농업과학기술 연구갬발사업 결과 평가회 실시... 112과제 평가 다솜쌀 개발, 샤인머스캣 대체품종, 고추 칼라병 방제 등 연구성과 풍성	농업기술원	
⑪ **경북소방, 대형화재 대응역량 강화 토론회 개최** 도내 19개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한자리 모여.. 재난 대응역량 강화 모색	소방본부	
⑫ **경북도청신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힐링음악회 열려** 코로나블루 겪는 주민들 마음방역과 함께 지역주민의 상생화 화합 도모	신도시조성과	
⑬ **떫은감 전문연구기관 상주감연구소, 25년 역사를 담은 책자 발간** 감연구소 일반현황 및 변천사, 주요 연구성과 수록... 국내 감 연구기관 배부	상주감연구소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1. 22(일)】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서한교	
			팀 장	신환수	담당자 손지혜
		연 락 처	054-880-2384		

이철우 도지사, 한·미동맹의 전초기지 캠프워커 방문

- 7월 알랜 美대19사령관 도청 방문에 이어 이 도지사와 두 번째 만남 -

-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안보동맹에 이어 문화동맹으로 발전시켜야..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0일 한·미동맹의 전초기지이자 대구·경북의 지역안보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좋은이웃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 19지원사령부를 방문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스티븐 알랜(Steven L. Allen) 미 19지원사령관은 “한·미동맹 차원의 경북도지사의 방문에 감사드린다”며, “미 19사령부 장병들은 평시에는 변함없는 동맹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발생되면 미 8군의 즉시 출전태세를 지원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는 “초기 코로나19 대유행시 대구·경북을 위해 전 작전 가용요소를 동원해 지원해준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하고,

“지난 8월 체결된 경북도와 주한미군 부인회의 문화관광 업무협약을 통해 미8군사령부 가족들에게 경북의 역사·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친근한 유대를 형성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확립은 물론 문화영역까지 동맹을 확대해 문화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자”며, “go together(함께 갑시다)”를 외쳤다.

한편, 올해 6월 9일 취임한 스티븐 알랜(Steven L. Allen) 미 19지원사령관은 지난 7월 15일 취임 인사차 경북도청을 공식 방문했다.

<사진없음>

참고 **좋은 이웃 프로그램 (Good Neighbor Program)**

□ 취지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 목표

○ 주한미군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 가치중심적 신뢰, 그리고 헌신의 가치를 지닌 미군들에 대한 인식 향상

○ 주한미군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지역사회 존중 향상

○ 한국과 조화로운 관계 구축 및 촉진

□ 주요 활동사항

○ 주요 직위자 환담(지역 내 기관장, 군부대장 등)

○ 한미 친선 서클

○ 지역 대학생들의 미군기지 방문

○ 봉사활동

- 사랑의 집 고치기
- 연탄 나르기 봉사
- 무료 급식 봉사
- 영어 책 읽어주기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1. 22(일)】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권 경 수	
			팀 장	이응원	주무관 박광섭
		연 락 처	054-880-3511		

경북도, 내년도 환경산림분야 국비 24.5% 증액 상임위 통과

- 환경산림 국비예산 올해 보다 1351억원 증액 된 6857억원 확보 -

경상북도는 내년도 환경산림분야 국비예산 6857억원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506억원보다 24.5%(1351억원증) 증액된 수치이다.

내년도 국비예산은 미세먼지 문제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 관련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13억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569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20억원이 편성됐으며,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림재해 보호기반 구축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233억, △산불 등 산림재해방지 112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 136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상임위에서 신규 증액된 19개 사업(232억원)에 대해 시·군공무원, 지역 국회의원 및 출향 인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에서 국비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연초부터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림청 등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며, “최종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1년 동안 노력해온 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사진별첨>

국회 상임위 증액 사업 내역 : 19개 사업, 232억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개 사업, 15억원

(단위 : 억원)

사 업 명	건의액	정부안	국회증액 필 요 액	상 임 위 심사결과	비 고
2개 사업	15	0	15	15	
구미시 옥성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5	-	5	5	
영주시 땅밀림 지역 복구	10	-	10	10	

□ 환경노동위원회 : 17개 사업, 217억원

(단위 : 억원)

사 업 명	건의액	정부안	국회증액 필 요 액	상 임 위 심사결과	비 고
17개 사업	339	0	339	217	
경산 노후정수장 정비	85	-	85	85	
구미시 인동 침수대응	18	-	18	18	
문경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사업	14	-	14	5	
풍산1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3	-	3	5	
경주시 희망농원 환경개선(하수관로정비)	42	-	42	5	
문경시 녹문지구외 관로(신설) 정비사업	16	-	16	5	
상주시 남적, 신상처리분구 관로(신설) 정비사업	20	-	20	5	
청도군 금천 하수관로정비사업	15	-	15	5	
칠곡군 가산 다부 관로(신설) 하수관로 정비사업	10	-	10	5	
포항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44	-	44	24	
김천시 구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	-	10	3	
김천시 감천 광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정비사업	10	-	10	3	
문경시 산북 우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	-	5	3	
울진군 봉산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4	-	4	3	
경주 희망농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28	-	28	28	
경북 상주 폐기물매립시설 확장공사	3	-	3	3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매입	12	-	12	12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1. 22(일)】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김 영 길	
			팀 장	이민자	주무관 손승민
		연 락 처	054-880-3788		

경북도내, 코로나19 국내감염 6명 발생

- 김천대학교 관련 3명, 안동 1명, 문경 1명, 영주 1명 추가 확진자 발생 -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1일 도내 6명(김천3, 안동1, 문경1, 영주1)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천대학교 관련 19일 학생 3명으로 시작된 확산은 20일 7명에 이어 21일 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3명의 확진자 중 동대학교 학생 1명, 동 대학교 학생의 접촉자 1명, PC방 운영자 1명이다.

※ 누적 확진자 13명 : (11. 19) 김천 3 → (11. 20) 김천 +7 (11. 21) → 김천 +3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김천대학에 이동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김천대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검사를 확대했다. 또한, 다수의 확진자가 이용한 모 PC방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했으며, PC방 이용자에 대한 검사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안동가족 성남방문 관련 추가 확진자는 18일 확진 판정받은 안동확진자의 접촉자로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판정 받았다.

※ 누적 확진자 5명 : (11. 18) 안동 3 → (11. 19) 안동 +1 → (11. 20) 안동 +1

문경시체육회 관련 추가 확진자는 7일 확진된 문경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 누적 확진자 2명 : (11. 7) 문경 1 → 문경 +1

신규로 발생한 영주어르신은 발열증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확진판정 받았으며,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와 확인된 접촉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 누적 확진자 1명 : (11. 21) 영주 1

김진현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일상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시고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당부했다.

<사진없음>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1. 22(일)】	담당부서	아이여성행복국 인구정책과		
		작성자	과 장	유 정 근	
			팀 장	정창호	주무관 권세형
		연락처	054-880-4519		

경북도, 인구변화에 따른 지자체 역할과 입법정책 정비방안 찾는다

- 지자체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과 발전방향, 지방소멸 특별법 등 논의 -

경상북도는 20일 문경새재리조트에서 강성조 행정부지사,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교식 (사)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 및 관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입법정책적 정비방안’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한국입법정책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 등 인구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자체의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입법정책적 방안에 대해 전국 각지의 학계, 변호사 등이 모여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제1세션)인구변화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인구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 △(제2세션)일본, 북유럽의 인구변화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과 입법정책, △(제3세션)행정구역변경을 위한 자치법규의 문제, △(제4세션) ‘(가칭)지방소멸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대안,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장교식 (사)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앞섰던 일본도 인구 고령화로 도시로 인구집중현상이 더욱 높아졌으며 그에 따른 지자체의 인구감소는 따라오는 결과였다”며, “우리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며 이에 따른 선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인구감소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기의식을 갖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우리가 처한 인구문제와 지역문제에 대응하고 행정통합 등 극복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민·관·지역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한국입법정책학회는 한국의 법제발전을 위해 학술 조사, 연구 등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개헌,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규제 개선방안 등 진정한 지방자치단체 실현을 위한 학술대회를 다수 개최했다.

〈사진별첨〉

'인구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입법정책적 정비방안' 학술대회 개최

❖ 인구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향과 입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개 요

○ 일시/장소 : 2020. 11. 20.(금), 14:00 ~ 17:30 / 문경새재리조트 1F(문희홀)

○ 참 석 : 50여명(학계, 학회, 변호사 및 관계자 등)

* 최윤철 건국대 교수(학회 대표), 장교식 건국대 법전원 교수(학회장), 김동련 신안산대 교수(학회 총무이사),

* 고문현 숭실대 교수, 마강래 중앙대 교수, 조정찬 숭실대 교수, 이주석 前)道 행정부지사 외

○ 주요내용 : 인구변화에 따른 지자체 역할과 입법정책적 정비방안 모색

- 인구변화가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과 지자체의 역할 변화
- 일본, 유럽의 인구변화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과 입법정책
- '지방소멸방지를 위한 특별법' 가칭에 대한 대안

○ 주최/주관 : 경상북도/(사)한국입법정책학회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14:00	30′	▸ 등록		
14:00~14:10	10′	▸ **개회,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 개회사 : 장교식 회장(한국입법정책학회) ▸ 환영사 : 행정부지사 / 축사 : 경상북도의회 의장, 문경시장 ▸ 감사패 수여 및 기념촬영		사회 : 김동련 교수 (학회 총무이사)
14:10~15:50	100′	▸ **제1세션**	• 인구변화가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 인구변화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 변화	
		▸ **제2세션**	• 일본의 인구변화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과 입법정책 • 유럽의 인구변화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과 입법정책	
15:50~16:00	10′	▸ **Coffee time**		
16:00~16:50	50′	▸ **제3세션**	• 행정구역변경을 위한 자치법규의 문제	
		▸ **제4세션**	• 지방소멸방지를 위한 특별법 가칭에 대한 대안	
16:50~17:30	40′	▸ **종합토론**		사회 : 장교식 교수 (건국대)
17:30~		▸ **폐회**		

세부 시간계획

일 시	주 요 순 서	
13:30-14:00	**등록 및 개회식[사회 : 김동련 교수(한국입법정책학회 총무이사)]**	
13:30-14:00	등 록	
14:00-14:10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 회 사 : 장교식 회장(한국입법정책학회, 건국대 법전원 교수)	
	환 영 사 :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 축 사 : 경상북도의회 의장, 문경시장	
14:10-15:50	**제1세션 주제 발표 및 토론** **좌 장 : 최용전 교수(대진대)**	**제2세션 주제 발표 및 토론** **좌 장 : 심경수 교수(충남대)**
14:10-15:00	**제1주제** **인구변화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 김정욱 박사(KDI 센터장) 토론자 : 유성희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은애 교수(송원대)	**제4주제** **일본의 인구변화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과 입법정책** 발표자 : 채우석 교수(숭실대) 토론자 : 최철호 교수(청주대) 김정덕 박사(서울시의회)
15:00-15:50	**제2주제** **인구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 발표자 : 마강래 교수(중앙대) 토론자 : 김남욱 교수(송원대) 김기태 교수(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제5주제** **북유럽의 인구변화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과 입법정책** 발표자 : 홍선기 교수(국회연수원) 토론자 : 최윤철 교수(건국대) 김주영 교수(대구대)
15:50-16:00	**Coffee time (10분)**	
16:00-16:50	**제3세션 주제 발표 및 토론** **좌 장 : 정대 교수(한국해양대)**	**제4세션 주제 발표 및 토론** **좌 장 : 고문현 교수(숭실대)**
16:00-16:50	**제3주제** **행정구역변경을 위한 자치법규의 문제** 발표자 : 김동련 교수(신안산대) 토론자 : 김명엽 박사(한국토지공법학회) 석호영 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제6주제** **'지방소멸방지를 위한 특별법'가칭에 대한 대안** 발표자 : 김원중 교수(청주대) 토론자 : 조정찬 교수(숭실대) 이진홍 교수(건국대 글로컬캠퍼스)
16:50-17:30	**종합토론[사회 : 장교식 교수(건국대)]**	
16:50-17:30	토론자 : 진동섭 박사(삼영회계법인) / 토론자 : 강현호 교수(성균관대학교) 토론자 : 이승은 교수(덕성여대) / 토론자 : 김진기 변호사(법무법인 평안) 토론자 : 박규용 교수(제주대) / 토론자 : 박광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박주선 박사(수원시의회) / 토론자 : 황만구 박사(공무원협의회)	
17:30	폐 회 사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1. 20(금)】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		
		작 성 자	부 장	정 광 현	
			과 장	손동철	주무관 박성익
		연 락 처	054-339-8241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 방역 유공 금오대상 수상

- 코로나 검사 비상대택반 구성... 신속한 코로나 검사로 감염확산 차단 -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 코로나19 검사 비상대책반이 19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46회 금오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분의 금오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금오대상은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시·도민 중 코로나19 방역 유공 분야에서 사회공헌이 뚜렷한 30여명(단체 포함)의 후보자 중 금호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개인 11명과 1개 단체(연구원 코로나19 비상대책반)가 금오대상 수상자로 선발됐다.

올 초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대량 발생함에 따라 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의 핵심이 신속·정확한 검사결과라고 인식하고, 1월 24일 ‘코로나19 검사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총 30명의 검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은 현재까지 연중무휴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3만2444건(11월 18일 기준)의 코로나19 시료를 진단해 754건을 확진자로 판정했다.

이경호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 연구원에서의 금오대상 수상은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코로나19 유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분들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잘 견디고 계시는 시·도민 분들”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금오회가 주최하는 금오대상은 대구·경북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위로·격려 하며, 사회봉사의 분위기를 더욱 높이기 위해 매년 1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1. 22(일)】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빅데이터담당관		
		작 성 자	과 장	이 정 우	
			팀 장	홍정란	주무관	김수철
		연 락 처	054-880-2142		

경북도, 22만여 농가·임가·어가 대상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 11.23일부터 인터넷조사 우선실시... 12.1일부터 방문조사 병행 실시 -

경상북도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도내 모든 농가·임가·어가와 읍면동 지역의 행정리를 대상으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이번조사는 농업·임업·어업을 경영하는 가구의 규모, 구조,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읍면동지역의 행정리 대상으로 사회·문화·복지·생활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역조사도 병행한다.

조사대상은 도내 농립, 임업, 어업을 경영하는 22만2천가구와 5263개 행정리이다.

조사항목은 농가·임가, 해수면어가, 내수면어가, 지역 등 4종 127개 항목으로 농림어가의 변화상, 농림어업 경쟁력, 농어촌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조사방법은 비대면 인터넷조사와 방문 면접조사가 병행 실시된다.

비대면 인터넷조사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가구에 배부된 조사안내문에 있는 참여번호로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https://www.affcensus.go.kr)에 접속해 참여하거나 080콜센터(080-360-2020)에 연락해 참여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진행되는 비대면 인터넷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내년 7월에 공표예정이며, 농림어업 정책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주택총조사에 연이어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사이기 때문에 도민의 불편이 우려되지만 농산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인 만큼 정확한 응답을 당부드리며,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 조사인 인터넷조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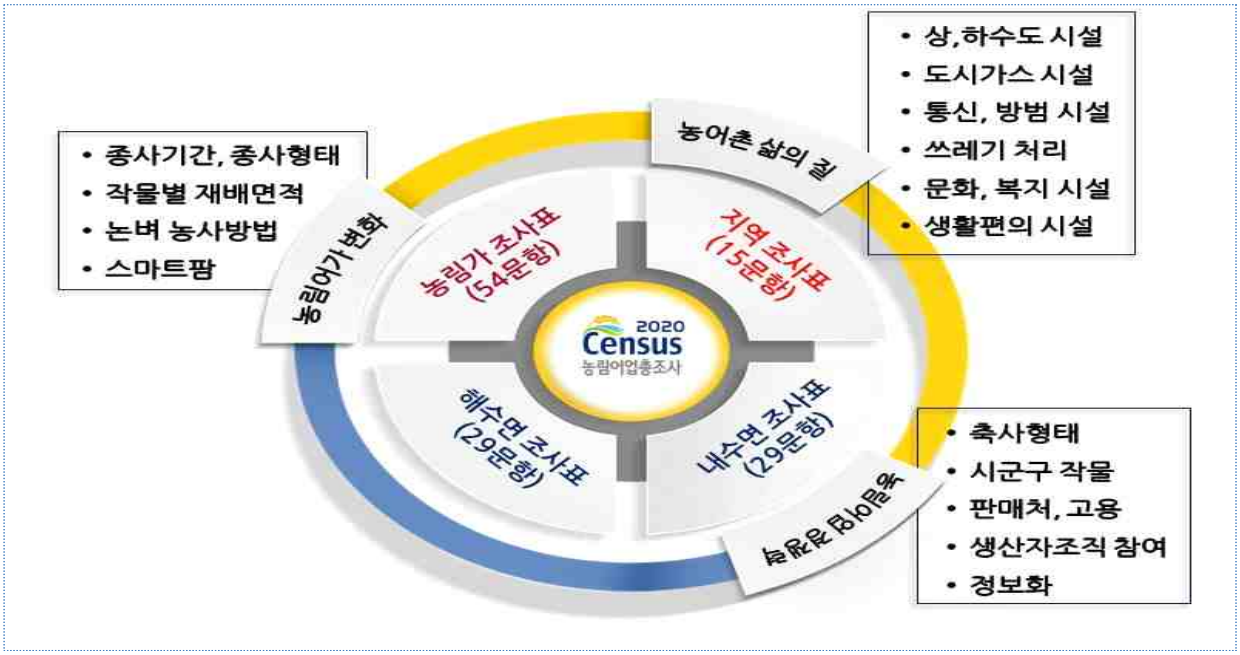
〈사진없음〉

참고

2020 농림어업총조사 개요

- 연　　혁 : 농업총조사('60년),어업총조사('70년),임업총조사('98년)를 각각 실시하다가 2010년부터 농림어업총조사로 통합 실시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의 1항*, 농림어업총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9호)

  * 농림어업총조사 : 지정통계 제101041호
- 조사기준 시점 : **2020년 12월 1일 0시 현재**
- 조사대상 : 조사기준 시점 현재 경상북도 **모든 농림어가와 행정리**
- 조사기간 : 인터넷조사 2020.11.23. ~ 12.11./ **방문조사 12.1. ~ 12.18.**
- 조사방법 : 방문조사(태블릿 또는 종이조사표)와 인터넷조사 병행
- 조사항목 : 4종 조사표, 127개 항목



- 실시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실시기관)**
- 동원인력 : 2,570명(공무원 270명, 조사요원 2,300명)

  ※ 전국 : 총 2만명 내외(공무원 4,070명, 조사요원 16,451명)
- 소요예산 : 39억원(전국 271억원)
- 결과공표 : 잠정 2021.7월 / 확정 2021.9월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1. 22(일)】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작 성 자	과 장	김 재 준	
			팀 장	엄태인	주무관 이동우
		연 락 처	054-880-3610		

경북도, 23일부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소나무류 취급업소 등 대상 불법유통 근절... 재선충병 확산 차단 -

경상북도는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취급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남부지방산림청, 시·군과 합동으로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도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조경업,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 708개소와 화목사용 농가, 찜질방 등 6918개소이며, 23일부터 29일까지는 사전안내 및 계도 중심으로 실시하고,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방제조치 명령과 함께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사항의 엄정함을 알리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없

음>

참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

위 반 내 용	벌 칙 규 정	근 거
법 제10조제1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제한〉 1. 감염목 등인 입목의 이동 2.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다만,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제외) 3. 감염목 등인 원목의 이동(다만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 4.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 5.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다만,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 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경우 제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17조 제1항
법 제8조제1항 〈방제명령 불이행〉 1.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 명령 2.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3.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4.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 조치명령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 제2항
법 제10조제3항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o 산림소유자 등은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		
법 제10조의2제1항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o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 제3항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1. 22(일)】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과		
		작성자	과 장	김 진 규	
			팀 장	문성준	주무관 서구환
		연 락 처	054-537-7726		

물멍시대, 경상북도가 관상어 산업을 선도한다

- 11.20일, '관상어 산업의 미래와 경북의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 -

- 웰빙문화 확산, 코로나블루 치유 등 관상어 시장 연평균 7~8% 급성장 -

경상북도는 전 세계적인 반려동물 성장세에 발맞춰 관상어 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일 '관상어(觀賞魚) 산업의 미래와 경북의 발전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노 섬 제주대 명예교수의 '해수 관상어 현황과 전망'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토속어류산업화센터 박재민 연구사가 '토속 관상어류의 기술개발과 연구동향'을 주제발표, 경기도 안성비단잉어 이태은 대표와 아쿠아 춘천닭갈비 한동균 대표의 산업현장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관상어 산업동향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의 산업 방향성과 발전모델 발굴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관상어가 과거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웰빙문화의 확산 등으로 정서적 교감까지 이루어지는 반려어(魚)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 우울증 치료를 위해 물을 보면서 멍을 때리는 '물멍' 아이템이 한 온라인마켓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으며, 관상어 관련 산업이 개, 고양이 등 반련시장과 함께 매년 7~8%씩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경북도는 토속어류산업화센터를 통해 2016년부터 관상어 산업화

연구에 착수해 각시붕어, 칼납자루 완전양식 성공, 각시납줄개(교잡) 신품종 개발 및 특허 등록, 한국관상어 품평회 2년 연속 금상 수상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관상어 전시회를 통해 토속관상어의 아름다운 특색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경북도는 이런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반려시장의 산업화 잠재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장선점을 위해 관상어 연구 분야를 확대하고, 청년 어업인 육성, 창업 교육, 전시·체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는 관상어 R&D·창업·교육센터, 전시·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관상어 전문 연구·개발·산업화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상주시 낙동면 일원에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김남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세계 반려동물 관련시장 규모는 해당 국가들의 GDP 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추세로 성장 중이며, 한국의 반려동물 관련시장 규모 역시 같은 동향을 보이고 있다” 면서, “국내 관상어 산업을 선점해 도시청년을 지역으로 유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사진별첨>

『관상어 산업의 미래와 경북의 발전전략』 심포지엄 계획

Ⅰ 추진배경

○ 최근 1인 가구 증가,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관상어 세계시장**은 약 45조 원, 국내는 약 4,100억 원 규모로 연평균 7~8%대 성장 중

○ **관상어 산업**의 국내 정책 기조, 육종개발 기술 상황,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토의를 통해 우리도의 **방향성**과 **발전모델**을 발굴

Ⅱ 행사개요

○ 일　　시 : ’20. 11. 20.(금) 15:00

○ 장　　소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세미나실 (경북 상주시 도남동)

○ 주최/주관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토속어류산업화센터

○ 참 석 규 모 : 50명 정도

○ 주 요 내 용 : 관상어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비전을 점검하여 경북도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Ⅲ 세부일정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5:00 ~ 15:20	20′	• 참석자 등록	
15:20 ~ 15:30	10′	• 참석자 소개 및 인사 말씀	道 환동해지역본부장, 주요내빈
15:30 ~ 15:50	20′	• 기조 강연	노섬 (제주대 명예교수)
15:50 ~ 16:10	20′	• 주제 발표 (기술개발 상황)	박재민 (토속어류산업화센터)
16:10 ~ 16:20	10′	• 휴식	
16:20 ~ 16:40	20′	• 산업현장 사례 발표 Ⅰ	이태은 (안성비단잉어 대표)
16:40 ~ 17:00	20′	• 산업현장 사례 발표 Ⅱ	한동균 (아쿠아춘천닭갈비 대표)
17:00 ~ 17:20	20′	• 종합 토론	
17:20 ~ 17:30	10′	• 폐회식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추진 현황

❖ 국내 **반려산업** 발전과 함께 관상어 전문 연구·개발·산업화 **거점 구축**

❖ 지역 **관광자원**이 연계된 새로운 혁신 모델 제시로 **도시청년 지역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도모

건립 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2년 (3년간)

○ 사 업 비 : **190**억원* (국비 95, 지방비 95)

* 연차별 투자계획 : ('20) 10억원, ('21) **34.4**억원, ('22) **145.6**억원

○ 사업위치 : 상주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권역 내 (낙동리 5번지 일원)

○ 사업면적 : 부지 **42,900**㎡ (13,000평)

○ 사업내용 : **관상어** R&D·창업·교육센터, 전시·체험시설 등 건립

현재까지 추진사항

○ '19. 07. : 국가 관상어산업 클러스터 **기본구상** 연구용역 (경북도)

○ '19. 12. :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타당성** 용역 및 유치 (상주시)

○ '19. 12. : '20년 **국비 예산** 8억 확정

○ '20. 03. : '20년 제1회 **추경예산** 확보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 '20. 04.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승인 (조건부)

○ '20. 04.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8월 관리계획 의결)

○ '20. 08.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11월 10일 완료)

○ '20. 09. :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 착수 (12월 중순 완료)

○ '20. 11.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향후계획

○ '20. 12. : 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 '21. 01. : **설계공모** 시행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건축디자인과 이관)

○ '21. 10. : 비즈니스센터 건립 공사 **착공** ('22 준공)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1. 22(일)】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노동과		
		작 성 자	과 장	박성근	
			팀 장	김보영	주무관 김진경
		연 락 처	054-880-2651		

경북도, 구인·구직자의 오작교 역량을 강화한다!

- 도·시군 일자리 담당공무원, 취업지원센터 상담사 역량강화 공동연수 -

경상북도는 19일 안동 그랜드호텔, 20일 경주 황룡원에서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와 일자리 담당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상담업무 담당자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양일간 2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도·시군 일자리 담당공무원과 취업지원센터 상담사의 직무능력 향상 및 일자리 상담자들 간의 노하우와 정보공유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1회차(11.19) 안동권역 : 안동, 김천, 영주,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봉화, 울진, 예천(12개 시군)

※2회차(11.20) 경주권역 : 구미, 영천, 성주, 경산, 청도, 포항, 영덕, 칠곡, 고령, 경주(10개 시군)

이날 행사는 ‘미래직업과 취업지도’, ‘MBTI를 통한 직무역량 파악 및 직무에 필요한 역량요소 파악’ 등 직무특강 위주로 진행됐으며, 특히 올해는 조직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팀 빌딩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구인·구직 업무를 전담하는 시·군 담당공무원 및 취업 유관기관 상담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 취업 유관기관 간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취업·알선 역량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한편, 10월말 현재 경북일자리종합센터(경상북도경제진흥원 위탁 운영) 및 시·군 취업지원센터*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총 9984명과 구직상담

을 진행했으며, 이중 4611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군 취업지원센터 : 도내 8개소(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천, 영주, 상주, 칠곡 소재)

이러한 취업 성과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한 수준(2019.10월말 기준 구직상담 실적 1만1095명, 취업 4484명)으로,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사상 초유의 고용 위기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자리기관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내년에도 도내 취업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구직자 중심의 취업상담을 통해 올해 전체 취업실적의 110%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근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올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한파 속에서 취업지원 상담사와 일자리 담당 공직자가 도민들의 일자리를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구인·구직자의 오작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추후 송부>

2020 시·군 일자리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개요

❍ 사 업 명 : 2020 시·군 일자리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 일　　정 : 2020. 11. 19.(목) ~ 11. 20.(금) 10:00~ / 2개 권역 개최
❍ 대　　상 : 시·군 일자리업무 담당 공무원 및 취업지원센터 관계자 등 70명
* 1회차(11.19) 권역(안동) : 안동, 김천, 영주,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봉화, 울진, 예천(12개 시군)
* 2회차(11.20) 권역(경주) : 구미, 영천, 성주, 경산, 청도, 포항, 영덕, 칠곡, 고령, 경주(10개 시군)
❍ 장　　소 : 1회차-안동(그랜드호텔), 2회차-경주(황룡원)
❍ 주요내용 : 상담 직종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행사계획(안)

일정	구분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권역 (11.19) 안동	1부 개회 및 특강	09:30~10:00	30'	등록	
		10:00~10:10	10'	개회, 국민의례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팀장
		10:10~10:30	20'	환영사, 격려말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도 일자리경제노동과장
		10:30~11:10	40'	<토론 및 대화의 장> - 센터 간 네트워킹, 건의사항 공유	도 일자리지원 담당사무관 경북일자리종합센터장(실장)
		11:10~11:20	10'	휴식	
		11:20~12:20	60'	[특강] 4차 산업혁명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12:20~13:20	60'	중식	호텔 내 식당
	2부 역량강화 및 화합의 장	13:20~14:20	60'	[직무특강1-미래직업과 취업지도] [직무특강2-일자리 상담사의 인문학 리더십]	ENTC 정재민 대표
		14:20~14:30	10'	휴식	
		14:30~15:30	60'	[팀빌딩]-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기희생	ENTC 정재민 대표
		15:30~15:40	10'	폐회	
2권역 (11.20) 경주	1부 개회 및 특강	09:30~10:00	30'	등록	
		10:00~10:10	10'	개회, 국민의례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팀장
		10:10~10:30	20'	환영사, 격려말씀	(재)경상북도경제진흥본부장 도 일자리경제노동과장
		10:30~11:10	40'	<토론 및 대화의 장> - 센터 간 네트워킹, 건의사항 공유	도 일자리지원 담당사무관 경북일자리종합센터장(실장)
		11:10~11:20	10'	휴식	
		11:20~12:20	60'	[팀빌딩]-조직내 원활을 소통을 위한 서로간의 소통능력 파악 및 팀워크 향상	커리어코치 김수인 강사
		12:20~13:20	60'	중식	호텔 내 식당
	2부 역량강화 및 화합의 장	13:20~14:20	60'	[직무특강]-MBTI를 통한 직무역량 파악 및 직무에 필요한 역량요소 파악	커리어코치 김수인 강사
		14:20~14:30	10'	휴식	
		14:30~15:30	60'	레크레이션	외부강사
		15:30~15:40	10'	폐 회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1. 22(일)】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작 성 자	과 장	김 종 수	
			팀 장	고진용	담당자 이형일
		연 락 처	053-320-0461		

경북농업기술원, 신기술 개발로 경북농업 발전 선도

- 올해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결과 평가회 실시... 112과제 평가 -

- 다솜쌀 개발, 샤인머스켓 대체품종, 고추 칼라병 방제 등 연구성과 풍성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유기농업연구소 교육관에서 ‘2020년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개발사업 결과 평가회에서 진행 중인 과제의 연구내용 수정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좋은 성과가 예상되는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을 중점 검토했으며, 올해 완결되는 과제는 연구결과가 신기술보급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했다.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결과평가는 부서평가, 내부평가, 외부전문가 초빙 평가의 총 3단계로 진행되며, 우수한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 중 112과제에 대해 평가를 시행했다.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그 결과가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게 했으며, 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과제는 조기 종료하고 신규과제를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Top 5과제, 중점과제, 기획과제 등 과제의 집중관리를 통해 ‘고추칼라병(TSWV) 방제 기술 개발’, ‘참외 양액 고설베드재배 기술 개발’, ‘다솜쌀 품종 보급 확대’ 등의 주요 성과를 도출했다.

최기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다양한 먹거리를 위해 새로운 신품

종을 육성하고, 우리 농업이 당면한 이상기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 연구를 강화해 가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개발 사업 결과 평가회를 통해 도출된 성과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1.22.(일)】	담당부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작 성 자	과 장	이 진 우		
			소방령	안영호	소방경	박유현
		연 락 처	054-880-6212			

경북소방, 대형화재 대응역량 강화 토론회 개최

- 도내 19개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한자리 모여.. 재난 대응역량 강화 모색 -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칠곡소방서에서 도내 19개 소방서 현장대응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화재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월 4일 칠곡군 왜관읍에서 발생한 공장화재를 비롯해, 최근 도내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 등 재난 현장의 최 일선에서 지휘하고 있는 현장대응단장들을 격려하고, 향후 유사한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현장지휘관의 냉철한 판단을 통해 초기진화에 성공한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이진우 대응예방과장을 좌장으로 현장지휘관의 역할 및 화재대응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도 펼쳤다.

현장대응단장 토론에서는 대형화재 초기에 소방력의 효율적 운용방안, 소방차량의 전술적 배치 필요성, 특수차를 활용한 탑다운 방식* 등 다양한 진압전술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으고, 대형화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탑다운 방식 :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주수하는 방식

남화영 소방본부장은 “경북소방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방법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장 최 일선에서 지휘하는 현장대응단장들이 재난현장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어 치열하게 고민해 현장에 강한 경북소방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1. 22(일)】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신도시조성과		
		작 성 자	과 장	이 석 호	
			팀 장	윤희란	주무관 양승욱
		연 락 처	054-880-4213		

경북도청신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힐링음악회 열려

- 코로나블루 겪는 주민들 마음방역과 함께 지역주민의 상생화 화합 도모 -

경상북도는 20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신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힐링음악회’를 개최했다.

안동상공회의소, 영남일보, 예천군번영회, 경북예총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음악회는 코로나블루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심리)방역을 통해 코로나19 조기극복과 경북도청 신도시 조기 활성화, 지역주민의 상생과 화합도모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참석자 사전예약제 실시 등 대면접촉 최소화를 통해 방역·안전을 도모했으며, 참석자 제한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공연을 관람하고 아쉽게 직접 관람할 수 없었던 주민들을 위해서는 안동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의 음악회 관련 팝업링크를 통해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언택트 참여를 병행했다.

이날 행사는 방송인 한기웅씨의 진행으로 안동시 칸타빌레 앙상블 합동공연, 뮤지컬배우 이승욱·성악가 김대엽의 축하공연, 예천군 보컬그룹 라온·예천국악협회 민요공연과 초청가수 김종환·김연숙의 특별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경북도는 2016년 3월 도청이전과 함께 행정타운건설 등 신도시 1단계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2022년까지 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호민지수변생태공원, 스포츠콤플렉스, 종합의료

시설, 복합환승센터, 복합물류센터 조성 등 명품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힐링음악회를 통해 신도시 주민들이 소통과 화합을 다지길 바라며, 코로나블루 등 일상생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예술적 감동으로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추후 송부〉

도청신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힐링음악회 계획

행사개요

○ 일　　시 : 2020. 11. 20.(금) 19:00 ~ 21:00(120분)

○ 장　　소 : 도청 동락관 공연장

○ 주　　최 : 道, 안동시, 예천군, 상생발전포럼

○ 주　　관 : 안동상공회의소, 예천군번영회, 영남일보, 경북예총

○ 참석인원 : 250여명

※ 유튜브 라이브방송 송출 : 안동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내　　용 : 지역예술단체 및 특별공연(초청가수)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9:00 ~ 19:10	10′	개회선언, 내빈소개, 인사말씀	
19:10 ~ 19:25	15′	지역예술단체 공연	▸칸타빌레 앙상블
19:25 ~ 19:40	15′		▸그룹 라온
19:40 ~ 19:50	10′		▸김대엽(베이스)
19:50 ~ 20:05	15′		▸예천국악협회
20:05 ~ 20:20	15′		▸이승욱(뮤지컬배우)
20:20 ~ 21:00	40′	초청가수 특별공연	▸김종환, 김연숙
21:00 ~		폐회	

기타사항

○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및 현장혼란 방지위해 전석 사전등록제 실시

○ 관람객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착용, 방문대장 작성 후 입장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1. 22(일)】	담당부서	경북농업기술원 상주감연구소		
		작 성 자	소 장	송인규	
			팀 장	조지형	주무관 하정석
		연 락 처	054-531-0591		

떫은감 전문연구기관 상주감연구소, 25년 역사를 담은 책자 발간

- 감연구소 일반현황 및 변천사, 주요 연구성과 수록... 국내 감 연구기관 배부 -

떫은감 전문연구기관인 상주감연구소가 설립 25주년을 기념해 지금까지의 떫은감 연구기술을 집대성한 ‘상주감연구소 연구25년’ 책자를 발간했다.

상주시 공성면에 위치한 상주감연구소는 떫은감 우량품종 육성, 병해충 방제 연구, 고품질 감 안전생산 기술개발 및 다양한 가공연구 등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으로,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는 연구소 일반현황, 감 연구 변천사, 주요 연구성과, 언론보도자료, 주요 활동 등이 담겼다.

상주감연구소는 1995년 설립된 이래 키낮추기, 병해충 방제체계 확립, 묘목생산체계 연구, 정지전정 등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곶감 품질향상 기술, 감 가공품 개발 등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 기술 개발을 위해 지역 농업인과 함께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상주 곶감, 청도 감말랭이가 최고 품질의 브랜드로 인정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연구소 설립 25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널리 알리고, 감 생산자는 물론 농업연구 및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상주감연구소 연구25년’ 책자를 발간·배부한다.

최기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떫은감 산업이 과거 200억원 내외에서 지금은 약 7천억원 규모의 산업으로 확대됐으며, 곶감, 감말랭이, 연시 등이 우리 농업의 대표적 소득작물의 하나로 성장했다”면서,

“상주감연구소 연구25년을 기념해 상주 감이 세계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별첨>